

임진희

할머니의 언어사전

연극

1.18(목)~1.20(토) 목금 8시 / 토 3시

쇼케이스 65분

*아티스트 토크 120(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ang.com/ch/7508

작연출 노트

<작업 과정>

- ① 초고 작업 : 2023년 10월 <할머니의 언어사전>을 기획하고, 가족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10월 마지막 주
- ② 1차 수정 : 창작진들과의 워크숍을 한 이후 11월 마지막 주
- ③ 2차 수정 : 공연화 연습 과정 12월 마지막 주

이 공연은 실제 아트랩 공연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을 담았습니다.

첫째로 흠어져 있는 할머니의 언어 조각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임과 동시에 작가로서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했던 첫 작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터뷰 질문은 최대한 할머니의 언어에 초점을 두고, 가족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제 질문과는 달리 가족들은 할머니라는 사람 그 자체, 할머니로 인해 겪은 본인의 기쁨과 아픔 등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답변들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다음으로는 창작진들을 모아 워크숍을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창작진들과의 워크숍에서는 주로 할머니의 정보를 나누고, '장애'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작업을 했습니다. 이어 공식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할머니의 언어에 대해 탐구해 보고, 청력이 상실된 세계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소리와 개념화된 말이라는 요소들을 차단해가며 워크숍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워크숍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되어보기 그리고 가족이 되어보기.

하지만 워크숍을 진행하면 할수록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감각을 차단하고, 모방해 본다고 한들 결코 할머니처럼 감각하는 건 결국 불가능했습니다.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관객 설문 바로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할머니와 가족의 시점이 되어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가족의 시점으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명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었을 때 실생활에서 겪는 답답함과 어려움에 대해선 다 같이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연 만들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공연을 만드는 그 시간은 이전의 단계들과는 또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 끝자락에서 깨달은 건 우리가 다 다르듯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목표로 향해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표현하는 언어 뒤에 있는 진심을 좀 더 세심하게 알아차린다면 언젠가는 그 실제 마음들이 맞닿을 수는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써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까지 겪고 나서야 비로소 공연의 대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대본은 실제 작업과정을 기반으로 수정되었고, 제가 겪는 경험과 감정에 맞춰 대본 속 임진희의 캐릭터와 드라마도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할머니와 언어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 작업과정을 더 겪을 것이고, 대본 역시 실제에 맞추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려 합니다.

임진희 작연출가

연극 <차표 한 장> <전우치-판도라의 서>
뮤지컬 <익스프레스 터미널>
음악극 <뚝뚝뚝> 외

창작 노트

여자, 남자, 아이, 어른, 외국인, 장애인.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 고유한 존재라는 점이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닌, 특정한 배경과 사람을 연결 지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옷투이 보지 못하기도 한다. 이번 작업의 모티브가 된 할머니도 '귀만 고장 났을 뿐'이었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전체가 다 고장 난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귀, 눈, 뇌, 그 밖의 신체 어느 부위가 조금 고장 난 사람들이 있다. 겉보기에는 고장 난 그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단순하면서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도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으로 오늘, 일상을 생생하게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손끝, 발끝, 눈빛, 입술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움직임으로 적극적인 표현과 소통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한국어 이외에도 소리, 움직임, 표정의 다양한 한국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마다의 기준으로,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으로, 오늘,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번 공연에 함께 할 관객들도 잠깐이지만, 떠올려볼 수 있기를..

윤혜정 프로듀서

연극 <할머니의 언어사전>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임진희

출연 이애리 정연심 이원선 이지수 윤혜정

프로듀서 윤혜정

드라마터그 최현정

움직임 전보람

무대 박종문

음악 홍기

음향 이현석

조명 강상민

영상 김지룡

무대진행 김동률 오륜

조명크루 이상민 김수은 양상모 임혜성

무대감독 이보한

[두산아트랩 공연 2025 공모 안내]

일정 2024.6.10~7.10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